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청담스님 외 지음

밥그릇 독차지하려는 이들에게 꾸짖음

사람들은 인과와 법을 믿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만 한다. 그 철저한 무책임성, 커다란 밥그릇을 독차지한 채 돌아앉아 자신의 입에만 밥을 퍼넣는 이기심.

화제의 책

평상심이 곧 도다 3 이은운 지음

중국 강서·호남 86개 선종사찰 답사기



중국 강서성 남향 우민사는 마조도일선사의 선택이 서린 고찰이다. "만법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대가 한입에 서강의 물을 동방 들이마신다면 그때나 말해주리라" 방운거사가 묻고 마조도일선사가 답한 선문답이 생생히 전해 내려온다.

화제의 책

항문을 조입시다 김도항 지음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



가수로, 광고 음악인으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명상가로 더 잘 알려진 김도항이 풀어놓는 순리에 맞는 자연스런 삶을 노래한 에세이집.



'월산선사법어집' 출간

승풍일신 주창한 월산스님의 가르침 후학들 일깨운다



월산선사법어집은 수행자의 귀감을 보이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켰던 월산스님(1912~1997)의 구술을 취재하고 새롭고 울곧은 승풍으로 종단 정화봉사의 정신적 기초를 이뤘던 스님의 가르침이 9월25일 일반 1주기를 맞아 책으로 담겨 나왔다.

러난 스님의 본래면목을 엿볼 수 있는 법문이 실려 있으며, 제2부 '월산가풍(月山家風)'에서는 선사의 가풍을 드러낸 법문들이 담겨있다.

또 스님은 언제나 수행에 게으르지 말 것을 후학들에게 엄하게 당부하시며 무지(無知)는 늘 자상하게 깨우쳐 준 것으로 유명하다.

월산스님은 1948년 도반인 청담·향곡·자운·성철스님 등과 함께 결사수행중 공주청구(共住) (mwhan@buddhapia.com)

시대순 불교사상 발전 '정리'

한종만교수 '한국불교사상의 전개'

<한국불교사상의 전개>(민족사)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불교를 강의해 온 원광대 한종만 명예교수의 평생의 연구업적을 모은 책이다.

불교학계의 일반론과는 달리 이미 남북조시대 영향을 끼쳤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14살 소년의 시각으로 본 세계의 종교와 문화

테오의 여행

"혹시 고모도 불교 신자세요?" "응, 그래" 마르틴 고모는 그제서야 테오에게 사실대로 고백했다.



북한 문화유적 답사기 북녘사찰 풍수답사

지금도 흔적만 남아있는 평양의 영명사가 대동강변에 세워졌던 이유는 실질적인 홍수대책을 위해 세워졌다.

경·유·논·소(經律論疏)를 총망라해 성립시기와 내용, 관련전적, 후세에 미친 영향, 번역연대 등을 항목별로 해설한 <대장경전해설대사전·大藏經全解說大辭典>이 나왔다.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10 best-selling books.

Table with 2 columns: 한국복식문화사전, 3천5백여 어휘 해설. Lists items from the book.

Advertisement for '四君子' (Four Gentlemen) book.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ook cover and text describing its features and price.

Advertisement for '佛敎大辭典' (The Encyclopedia of Buddhism).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ook cover and text describing its features and price.